

선우휘 초기소설에 대한 일고찰

김종욱*

1. 들어가는 말

선우 휘는 1955년 작품 <귀신>을 《신세계》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는 중편소설 <불꽃>으로 1957년 《문학예술》 신인작품공모에 당선하고, 이듬해 제2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전후문단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의 문학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1950년대 문학의 저류에 흐르고 있던 '관념적이고 병적인 태도'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행동적 의지를 분명히 강조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선우휘는 손창섭의 수동적인 인간상, 장용학의 관념적인 인간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우휘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초기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선우휘의 소설이 행동적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역사에의 도전과 저항, 현실과의 대결, 지식인의 고민과 책임을 표현한 작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정설화되다시피 했다. 이어령이 선우휘의 작품세계를 종래의 작가들이 고수하고 있던 '관조'의 세계를 버리고 '행동'의 세계로 뛰어든 행동적 휴머니즘이라고 규정한 이래, 그의 문학세계는 행동, 저항, 휴머니즘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작중인물의 행동적 의지, 작가의 이념으로서의 휴머니즘이 서로 짝을 이루

* 박사과정 수료

고 있는 이러한 평가는 이광훈, 황헌식, 김상일, 이재선 등으로 이어지면서, 선우휘가 수동적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1950년대 문학의 지형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¹⁾

이에 비해 선우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소박한 역사의식의 소유자였으며, 그것이 니힐리즘이나 현실도피적 순응주의로 드러난다고 보는 관점 역시 선우휘의 또 다른 일면을 지적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염무웅은 선우휘 문학을 “현실상황의 압력이 개인주의를 형성시키며, 동시에 그것의 파탄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선우휘 문학에 대한 종래의 일방적 찬사를 거부하고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염무웅으로부터 비롯하는 이러한 견해는 김윤식, 김현으로 이어져 이화진, 강진호 등으로 계속된다.²⁾

이렇듯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선우휘를 규정하는 ‘행동주의’와 ‘휴머니즘’의 실체가 분명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문학세계를 통일적으로 해명하려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 들면서 선우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950년대의 문학사적 지형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지나치게 현재적 관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선우휘 문학의 진정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선우휘에 대한 기존의 접근 중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이태동의 견해³⁾이다. 그는 「불꽃」이 6.25전쟁 이후 좌절감과 자기연민의 우울 중에 빠져 있던 1950년대 한국문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전환기적인

1) 이어령, 1957년의 작가들, 사상계, 1958.1

이광훈, 선우휘론, 문학춘추, 1965.2.

황헌식, 선우휘론, 현대문학, 1972.6.

김상일, 선우휘론, 신한국문학전집 24, 어문자, 1974.

이재선, 인간주의의 불꽃, 선우휘문학전집 4, 조선일보사, 1987.

2) 염무웅, 선우휘의 문학, 창작과비평, 1967.겨울.

김윤식, 선우휘문학의 세 가지 의미층, 선우휘문학전집 2, 조선일보사, 1987.

이화진, 1950년대 선우휘문학에 나타난 현실대응양상,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3.

강진호, 전후현실과 행동주의 문학의 실체,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3) 이태동, 선우휘론, 한국현대소설의 위상, 문예출판사, 1985.

작품이라는 전제 아래,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 시정(詩情)어린 간결한 스타일과 투철한 역사 의식, 그리고 존재문제와 밀착된 실존주의적 경험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실존주의적 경험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1950년대 지성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선우휘의 실존주의 수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전후문단에서 활동했던 비평가들 역시 실존주의 사상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우휘에 대한 당대의 높은 평가 역시 이 점에 근거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선우휘의 개인주의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사상적 근원으로서의 실존주의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선우휘의 올바른 문학사적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문학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1950년대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그의 문학의 내재적 원리를 간취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기한 실존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행동주의'와 '휴머니즘'의 실체를 살필 것이다. 실존주의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미리 앞서 달려가보는 실존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본래적인 가능성을 열어보려는 철학적 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통해서 선우휘 문학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행동의 의미가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물론 선우휘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학적 특성과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선우휘의 문학적 특성은 곧 그가 대타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다른 전후작가들, 예컨대 김동리나 손창섭과의 상대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선우휘를 통해서 우리는 1950년대 문학적 지형도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선우휘 문학의 몇 가지 특징

2.1. 중립적 서술자와 이념적 지향과 관련성

선우휘의 소설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작가의 개인사적 체험과 깊이 연

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특히 초기소설에는 신문기자나 군인, 혹은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조남현 교수는 선우휘의 “작가로서의 활동은 초기소설의 창작심리에 규율, 상명하복(上命下服), 행동제일주의, 승리의지 등을 생명으로 하는 군인체험”⁵⁾이 가장 큰 비중으로 관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를 관찰하고 서술하는 화자는 좌우의 모두를 비판하는 중립적인 자리에 서있다.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의 중립적인 위치란 존재할 수 없듯이 선우휘 역시 반공이데올로기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우익 인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내면의식을 살피려고 노력함에 비해 좌익인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불꽃」의 연호, 「승패」의 서구, 「깃발없는 기수」의 이철 등 공산주의 이념을 지닌 인물에 대해서 윤리적 비판자라든가 혹은 기회주의자로서 그리고 있는 것과 「테러리스트」의 학구, 길주, 걸 등을 애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를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전쟁 직후 월남한 걸, 길주, 학구 등 공산당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인물들을 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을 잃어버린 채 톱펜이 되어 버린다. 작가는 전후의 혼돈 속에서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테러와 함께 부패한 남한의 현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이들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매카시즘의 열풍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들편에 서 있는 그들의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부정적 인물이 오히려 현실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려지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나타나고 만다. 이러한 현상은 전후 남한 사회를 횡행하던 이데올로기적 독단성에 대한 비판적 안목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당성 자체는 부정될 수 없다는 작가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자체

4) 선우휘의 소설에서는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측면에 특히 주목한 연구로 김윤식의 「선우휘문학의 세 의미층」(선우휘문학선집 5, 조선일보사, 1987)과 조남현의 「선우휘 소설에의 한 통로」(문학정신, 1990.2)를 꼽을 수 있다.

5) 조남현, 같은 글.

는 정당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합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된 반공의식은 실향민으로서의 작가의 위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을 것이다. 물론 해방 직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전기적 사실은 「테러리스트」, 「똥개」 등에서 나타났듯이 공산주의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인식으로 나타날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우휘의 경우 「보복」, 「오리와 계급장」, 「단독강화」 등을 통해 민족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과거의 정신적 상처로 인하여 전쟁에 참가하여 인민군에게 인정사정가지지 않고 보복하던 ‘맹’이라는 인물이 한 인민군 병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죽어간다는 내용의 「보복」과 전열에서 낙오된 국군 병사와 인민군 병사가 단독강화를 하는 장면과 중공군을 만나 서로를 구하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단독강화」, 그리고 열렬한 좌익분자였던 김선생과 우파 테러리스트였던 춘봉 형님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오리와 계급장」 등을 통해 민족적 화해의 가능성과 순수한 휴머니즘의 추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작가는 민족적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을 중립적인 서술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작중인물들의 휴머니즘적 의식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작가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작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선우휘의 문학세계를 살피는 데 있어 반공이데올로기를 잣대로 삼는 것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바인데, 선우휘는 중립적 서술자를 통해 그것의 객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우휘의 소설에 등장하는 중립적 서술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선우휘의 의식 근거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발견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을 적대시해야만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실향민으로서의 그의 위치는 민족적 대립을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한 화해의 가능성

은 막연한 상태에 불과하다. 「단독강화」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선우휘는 민족분단이 '똑똑한 놈'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따라서 '바보'가 되어야 민족분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문단데뷔작 「귀신」에서 “순수한 것이 불행해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것이 천대를 받는 그러한 것만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나, 「열 세 살 소년」에서 유년적 순수성(혹은 인간의 공통심성)을 통해 민족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과 동궤에 놓인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황순원의 「학」과 함께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지형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우휘가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은 작가 개인의 오류가 아니라 시대적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1950년대에 있어서 반공이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뿐만 아니라 M.M 바흐젠이 말하는 바 일상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선우휘의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남북한 체제 어느편에서도 자신의 현실적 기반을 잡지 못한 '타자'이라는 인식이 놓여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남에서 벌어지는 생존경쟁에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실향민으로서의 위치가 현실논리의 외곽에서 중립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2.2. 대립적인 인간관계와 그 의미

선우휘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독특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가치가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상황에 처하여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자기정체성의 위기는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외로움은 등장인물이 타인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립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나'를 인정해 줄 누군가가 없다면 분리된 인간으로서의 '나'는 아무런 존재의미도 획득할 수 없으며, 심각한 고독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맺고 있다고 느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근대적 공

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인물들은 개인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열망을 간직하게 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열망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자신의 행동을 내맡김으로써 타인과의 일체감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선우휘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여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테러리스트」의 학구·길주·결, 「불꽃」의 연호, 「똥개」의 용철, 「승패」의 서구, 「보복」의 맹 등은 모두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선택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쟁취하려는 인물이다.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모습이야 자유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세분할 수 있겠지만, 남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단일성과 독단성은 등장인물의 권력의지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이에 비해 「불꽃」의 고노인, 「화재」의 아버지, 「도전」의 정씨 등은 현실에 순응하여 부와 명예를 쫓는 인물이지만, 미신, 종교 등을 통하여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인물에 비해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은 일상적 가치를 신봉하며, 타인의 삶과는 철저히 분리된 채 개인적 목표만을 추구한다. 이념적 가치가 현실 속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표작인 「불꽃」은 이러한 기본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아버지 고노인은 대를 잇는다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모욕과 모멸을 견뎌나가는 도피와 체념의 인물이다. 김주사의 아들과 손자 고현이 벌이는 싸움의 와중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어떠한 정신적인 굴욕도 감수한다는 처세철학을 잘 보여준다. 해방이 되자 3·1운동 기념식장에 참여하는 행위는 아들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부정했던 기왕의 모습과는 구별되지만, 현실의 변화를 '항상' 인정하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방식은 지배세력의 가렴주구에 시달려온 불행한 민족사에서 연유하는 듯하다. 수탈과 폭압으로 일관된 역사에 대한 소극적 부정의 태도가 체념이라는 생존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태평천하」의 윤직원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한 고노인의 이러한 왜곡된 개인주의는 누대에 걸친 파행적 역사 속에서 살아남

기 위한 한 개인의 부득이한 선택의 하나였던 셈이다.

이러한 왜곡된 개인주의에 대립하는 인물들이 고노인의 주변에 존재한다. 고현의 아버지는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다가 3·1운동에 참가하여 희생된다.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허구적 구호에 중독되어 무분별한 전쟁의 광기에 휩싸이는 일본인들의 모습 역시 “남을 괴롭히는 선민의 식과 값싼 영웅주의”의 발로이다. 또한 연안 팔로군이나 친구 연호의 삶 역시 이러한 집단주의적 의식과 다르지 않다. 해방 후에 무고한 인물을 인민재판으로 내모는 “청탁자 없는 청부업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고노인과 대립하는 이러한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때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 명분 앞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개인적 가치를 부정하기도 한다. 「테러리스트」, 「오리와 계급장」 연작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념인들의 권력에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회생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러한 희생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음으로써 악과 폭력의 무한반복에 빠져버린다.⁶⁾ 즉 자신이 선택한 가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심리적 고독은 이념적 가치나 일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념을 추구하는 인물과 일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인물들의 삶은 주인공들의 의식과 행동을 통해서 부정된다. 이념인들은 선우회의 소설에서 몰락, 죽음, 실종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념인들은 인간적 가치를 왜곡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의 혼란에 적극적으로

6) 타자에 대한 맹목적인 공격성은 「테러리스트」에서 이미 나타났거니와, 등장인물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내면적 고찰 없이 체험에서 연유하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테러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희생과 보복의 악순환은 「승패」에서 나와 서구 사이의 경쟁과 대결의식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은 월남했다가 남한의 사회상에 실망하여 월북, 공산주의자인 친구 서구의 도움으로 농사일과 교직생활에 종사하지만, 북한의 현실에 역시 환멸을 느끼고 월남한 ‘나’와 공산당원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나의 도움으로 남한에서 살아가는 서구라는 인물 사이의 내면적 투쟁의 기록이다. 타인에 대한 지배를 통해서 뿌리뽑힌 자로서의 고독과 공포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로 편승하여 성공한 「화재」와 「아버지」의 아버지 등은 역시 부정되어야 할 인물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누군가의 회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선우휘의 이러한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화재」이다. “살아남은 것에 특별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의 것을 앗았다는 점이겠지. 무엇이 고간에 도둑질하고 있다는 점이야”⁷⁾라고 외치는 면의 의식과 행동은 세속적인 부와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성세대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인의 성공 뒤에 감추어진 비리와 부도덕을 들추어냄으로써 기성세대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이같은 태도는 1950년대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선우휘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간관계에서 우의, 공감, 애정 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왜곡된 개인주의는 타자의 삶에 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며, 집단주의는 자신이 선택한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위해 타자를 지배하고자 함으로써 진정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기본적으로 전쟁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상황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욕망은 기본적으로 생명유지본능과 동계의 것이다. 하지만 전장을 소설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을 제외하더라도 선우휘의 초기소설에서 자아와 타자의 대립적인 관계는 쉽게 발견되는 바, 선우휘의 인간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타인의 배신에 의해 항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인식이 자아와 타인간의 관계의 바탕을 형성한다. J.P.사르트르가 타인의 시선을 '지옥'이라고 불렀듯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자아상실의 위기에 처한 개인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과 물리적·정신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인 인간관은 선우휘의 경우 이념인과 일상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자아정립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 화재, 선우휘문학선집 1, 조선일보사, 1987, 139면.

2.3. 행동의지와 실존적 자유의 문제

일상적 인물이나 이념적 인물은 자신의 내부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탓에 이데올로기·부·명에 등에 대한 맹목적 추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들의 모습에서 선우휘가 발견한 것은 역사의 단순화, 혹은 결정론에 입각한 인간의지의 부정이라는 측면이다.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결정론적 역사철학은 필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해버린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적 삶의 의미를 박탈하는 것이다. 개인은 존재하지 않고 집단의 광기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유의 철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상적 삶에 대한 집착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숙명론에 젖어 있다. 즉 일상인들은 삶을 요행의 연속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풍수지리(「불꽃」)라든지 도박(「도박」) 등의 행위에 의존한다. 이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동일하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외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유지하는 모습은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이며, 비본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부정적인 인간조건을 끊임없이 긍정적인 가치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불꽃」의 경우 고현은 한국전쟁이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자각하고 비인간적 행위와 도식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꾀한다. 「화재」의 면은 아버지의 비열한 축재방법을 상징하는 K관을 불사르고, 「아버지」에서 나는 아버지의 부도덕성에 저항하기 위해 가출하며, 「도전」에서 인간은 관상쟁이를 살해한다.

이러한 자기인식, 즉자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대자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의 이행의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죽음'이다. 조선생 아버지의 죽음,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고현은 자기인식에 도달한다. 일상적 삶의 방식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신의 본래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인 채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이라는 형태로 나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지금 아니면 결코'라는 결단의 순간이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 때 임의로 연기하거나 다른 선택

로 대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 진지성을 띠게 된다. 이렇듯 자신의 존존재를 거는 모험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아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롭도록 단죄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식은 자유의식이며, 이 때 자유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구현되는 자유이다. 즉 자유는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주어진 것을 선택하는 바로 그때 얻어진다. 그래서 싸르트르는 “자유란 오직 상황 속에 있고, 상황이란 오직 자유를 통해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선우휘의 소설적 주제는 이처럼 자신의 개인주의적 삶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 아래에서 선택한 저항이 자리잡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에 대한 내면적 성찰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진실한 의미에서의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는 작가의식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에 대한 허무의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어떤 인과질서로부터의 벗어남에 따라 자유로워지는 것, 달리 말해 외부적 속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의미로서 자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논리적으로 증명불가능하지만⁸⁾ 자유는 체험할 수 있다. 고현의 행동의지의 이면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의식하고,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유를 성취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실존적 자유의 의식이 놓여 있다. 따라서 행동의 문제는 본래적 상태로 이행이라는 의미에서 실존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관념 이외에 어떤 관념도 중요하지 않다. 행동은 그 자체의 속성상 불확정적이다. 일반적인 악과 부조리에 대항하여 행동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결정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선우휘의 이념이 보여주는 이러한 무정형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꽃」의 마지막 대목이다. 주인공 고현이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행동적 삶을 선택하면서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를 건설하자고 했을 때, 자기모순이 발생한다.

8) 일반적으로 논리적 증명이란 개념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불가능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우발성, 곧 필연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개념에는 논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나는 외로울 수 없다. 이제부터 그들 가운데서 잃어진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청부업격리하고 주어진 땅 위에 그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세우자. 거기에 내 덩의 삶을 바치는 것이다. 청부업자들의 교만과 포악을 곧 같은 인간인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돌리고 한결같이 고통을 참고 견뎌온 '조용한' 인간들, 광기의 청부업자는 사라지고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가 와야 한다.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9)

여기에서 주인공이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란 "한결같이 고통을 참고 견뎌온"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이 땅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고현은 아버지의 행동방식을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모든 불합리에 알몸으로 항거하고 불합리 속에 역시 불합리한 삶을 주장한 피어린 한 인간"의 "거인의 최후 같은"이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고현이 꽃밭을 가꾸며 살아가려는 노력과 연관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꽃밭의 꿈'을 향한 수 차례의 시도는 현실에 대한 관조적 응시의 비유적 표현이다. "빈손으로 의적이 죽음과 대결하고 생명을 태웠던" 아버지의 삶에 대한 추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근본에는 '꽃밭사상'으로 지칭되는 일상적 삶에 대한 동경이 놓여 있었던 셈이다.¹⁰⁾ 결국 선우휘 문학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행동적 세계를 지향하는 행동의 형상화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9) 불꽃, 선우휘문학선집 1, 조선일보사, 1987, 92면.

10) 선우휘는 「깃발없는 기수」의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평온한 현실과 무위에 가까운 선량한 서민성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소설의 주제로하여 형상화할 흥미는 없다.(……)현실은 남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의 절실한 문제로 보고 힘을 다하여 부딪쳐 가는데 나의 관심은 간다. 그것은 성실성과 정열에 성실하면 할수록 고뇌와 낙망과 좌절이 더하게 마련이다. 정열이 넘치는 곳,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벽에 부딪쳐 부서지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숙한 인간의 논리의 미가 있다"

3. 결 론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 여에 걸친 전투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라는 형태로 일시 중단상태를 맞게 된다. 따라서 휴전이라는 전쟁중단상태 는 이루 남북한 간의 심각한 정치적·사회적·이념적 대리상태를 야기한 다. 따라서 전후문학은 민족내부의 이념적 대립과 그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외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문 학적으로 형상화할 만한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적 한계 와 함께 전쟁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 애매성이라는 정신적 불구상태 속에서 놓이게 된다. 즉 전쟁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전 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인물들에게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좌 절을 안겨다준 것이다. 일상적 삶에서의 윤리적 정당성이 전쟁 상황 속에 서 완전히 붕괴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기반도 갖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세계 속에 칩거해버린다. 이러 한 상황적 한계와 정신적 불구성 속에서 전후문학은 비행동적 세계의 형 상화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일찍이 이어령은 「1958년의 작가상황」¹¹⁾에서 문협정통과를 중심으로 한 인정적 휴머니즘 계열의 작품은 “휴머니즘의 재고량(在庫量) 만을 가지고 는 인간의 타락을 보상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러한 결점 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성의 새로운 창조’ 혹은 ‘인간에의 새로운 모랄’을 추구한 작가로 오상원과 선우휘를 들고 있다. 이어 이어령은 “이 들의 작품에는 ‘섬’처럼 외로이 떼낸 어떤 인간의 소성(素性)을 제시한다 든다 현실을 한 객관자의 눈으로 관조하려고 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 자기 의 행동과 관계지워진 상태로서의 현실-그냥 거기 눈에 보이는 바깥의 현 실이 아니라 그의 골육과 호응하여 융립하여 일어서는 현실- 이 가운데

11) 지성, 1958.가을호.

서 그들은 인간의 의미를 쟁취하려 든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협정통과의 소설들이란 사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행복한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래적인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서 연유하는 이러한 자아와 타자의 일체감은 소설 내적 갈등을 항상 무화시키고 과거로의 몰입, 타자로의 이행으로 나타난다. 손창섭의 인물 역시 자연주의적 결정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현실의 부정적 면모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갖추지 못한 정태적 인물에 불과하다. 주체성의 포기라고까지 이름붙일 수 있는 이러한 소설적 경향은 부정적 현실을 폭로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한 채 현실에 갇혀 있거나 상상적 허구를 부유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이에 비해 선우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그것은 주체성의 강조, 동적 요소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선우휘가 창조해낸 인물들은 대부분 타자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는 전후의 윤리적 정당성 상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우휘의 특징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를 일시에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행동의 세계에 온몸으로 달려들어간다는 점이다. 즉 선우휘는 1950년대 한국사회의 위기를 자인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함에 있어 주체성, 동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순간적인 결단과 힘에 대한 찬미로 나타난다. 그가 파악하기에 현실적 위기의 근원에 놓여 있는 것은 이러한 결단과 자유의 문제를 방기하는 기성세대들의 역사결정론과 숙명론이었다. 이러한 비본래적 삶의 태도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선우휘는 당대의 한국 사회를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우휘의 미적 이상에 바탕에 놓여 있던 비역사성, 곧 순수성에 대한 동경과 초역사적 실존문제에 대한 집착이라는 한계는 그의 문학사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